

광주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 ...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탄력'

빛그린 국가산단·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등 4곳 지정
광주형일자리·AI 클러스터·에너지 밸리 사업 '청신호'

광주지역 4곳의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광주에서는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해온 인공지능(AI),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쏠렸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열어 광주와 울산·황해(시흥) 추가지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I 등 4개 지역 4.371㎢가 선정됐다.

경제자유구역(경자유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때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면서 국내외 투자유치 증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광주시가 제시한 경자유역 개발계획안은

은 '상생과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됐다.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구조를 재편,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AI 중심 도시를 기반으로 생체 의료, 스마트 에너지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소 등을

유치해 2027년까지 총 1조6279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10조 364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만7496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주력 산업단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투자유치

유발과 일자리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 클러스터, 에너지밸리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울촌3산단은 투자나 개발 등 성과가 부진하다고 보고 경자유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빛그린 국가산단,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도시첨단국가산단 등 4곳의 산업단지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3일 오후 광주 남구 대촌동의 에너지밸리 산단과 도시첨단산단에서 토목 공사 등 조성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스피 2100선 회복 경기회복 기대감에 급상승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피가 100일 만에 2100선을 회복했다. 올 들어 최저점(3월19일·1457.64)과 비교하면 47.3% 뛰어올랐다.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81포인트(2.87%) 오른 2147.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25일(2103.61) 이후 처음이다.

추가 급등하면서 증시 거래대금은 28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친 전체 증시 거래대금은 28조1804억원이었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6조80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개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286억원어치를 팔며 역대 4번째로 많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기관은 역대 3번째 규모인 1조159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000억원 가량을 사들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2포인트(0.80%) 내린 737.66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8.6원 내린 달러당 1216.8원에 거래를 마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5조 3천억 ... 코로나 위기 극복 '초슈퍼추경' 편성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정부, 오늘 국회에 제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관련기사 2·15면>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도 넘어서는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 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

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약화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스콜론 혼잡 ... 배려가 필요해 ▶6면
오월 광주 목판화 '민주주의 봄' ▶16면
KIA 92년생들 '가을 잔치' 꿈꾼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 KEPCO